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성취한다.



‘한수’가 ‘한 술’ 더 뜨다
‘한수’ SECRET KEY

2021학년도 한수 파이널 9회 모의고사
주요 문항 분석지

#Chapter 1. 오답률 Best 5, “선택지 판단” 집중 분석

[참고] 이 문항들은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자, 동시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 의미가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사실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은 낯선 문제를 보며 문제 풀이의 감을 유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모의고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얻어간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도 문항이라 함은 학생 개별마다의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틀린 것과 대응하기보다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점을 얻어가야 하는구나.' 정도의 생각으로 이 분석지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답률 예측		해당 문항	
오답률 5위	28%	39번	(독서 : 기술) - 세부 일치
오답률 4위	32%	30번	(독서 : 인문) -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연결
오답률 3위	40%	18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2위	48%	19번	(독서 : 사회)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오답률 1위	55%	40번	(독서 : 기술) -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문학] 고전소설 : 권필, '주생전' / 현대소설 : 김훈, '칼의 노래'

[문법] 13번, 14번, 15번

[독서] 사회 지문 : 신분법의 행위자와 가담자에 대한 법률 (해설 자료)

[독서] 기술 지문 : FET 바이오센서의 구성 및 원리 (분석 예시)

#Chapter 2. '영역 별 주요 지문' 집중 분석 참고

[오답률 5위(28%) 예측] : 독서-기술 39번 문항

[세부 일치]	
[Killer-Point]	<p>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① 전기식 신호 변환 방식을 채택한 바이오센서에 해당한다. ② 나노 구조체를 소재로 활용하면 잡음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③ 기존의 반도체 소재로 유사 게이트 부분을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민감도가 크게 낮아진다. ④ 바이오 수용체와 표적 물질이 상호작용하면 FET에 전원이 공급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⑤ 소자의 내부 전기장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를 활용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④]</p>
	<p>함정에 빠지기 쉬운 문제이다. '전원이 공급된 것'이라는 판단 지점을 놓쳤다면 답이 보이지 않아서 난이도에 비해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수 있다. 전원이 공급되어 '전류가 흐르는 것'과, '전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다르다. 4번 선지에서처럼 바이오 수용체와 표적 물질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전류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p>

[오답률 4위(32%) 예측] : 독서-인문 30번 문항

[지문의 견해와 <보기>의 견해 연결]	
[Killer-Point]	<p>30. <보기>는 과학 이론에 대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 몇몇 현대 과학 이론은 원리상 관찰 불가능한 이론적 대상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의 실재 여부를 관찰을 통해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이 다른 관찰 가능한 대상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면 그 대상이 실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을: 관찰 가능한 현상을 경험적으로 적합하게 설명하는 모든 과학 이론이 영원히 동등한 것은 아니다. 과학사에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프톨레마이오스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듯이, 관찰 가능한 현상을 더 적합하게 설명한 이론이 결국 더 우월한 이론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 병: 전자나 핵력 같은 관찰 불가능한 이론적 대상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러한 도구의 실재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관찰 이외의 방법으로는 어떤 대상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div> <p>① '갑'이 원리상 관찰 불가능한 이론적 대상이 실재함을 실험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런 대상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불가지론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겠군.</p> <p>② '갑'이 원리상 관찰 불가능한 이론적 대상을 전제하고 있는 몇몇 현대 과학 이론을 언급한 것은, 현대 과학 이론이 관찰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군.</p> <p>③ '을'이 경험적으로 적합한 모든 과학 이론이 동등하지 않다고 말한 것은, 과학 이론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더 적합하게 설명한 후속 이론에 의해 대체된다는 구조적 실재론의 주장에 동의하기 위한 것이겠군.</p> <p>④ '을'이 관찰 가능한 현상을 더 적합하게 설명한 이론이 더 우월한 이론으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과학의 목적이 우주의 모습을 참되게 포착하는 데 있다는 과학적 실재론의 주장에 동의하기 위한 것이겠군.</p> <p>⑤ '병'이 전자나 핵력 같은 추상적·논리적 구성물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한 것은, 이러한 도구의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찰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①]</p> <hr/> <p>이런 문제는 말 그대로 연결이 중요하다. <보기>의 각 견해들이 지문의 어떤 이론과 연결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다. <보기>에서 말을 바꿔서 쓰는 경우 난이도가 더 올라가겠으나, 다행히도 이 문제에서는 '갑'을 제외하고 지문에 있는 문장을 일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 면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보기>의 '갑, 을, 병'을 하나씩 지문의 이론과 연결시켜 보자.</p> <p>먼저 '갑'이다. 셋 중에 '갑'이 가장 까다롭다. 결론부터 말하면 '갑'은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나온 '반실재론에 대한 반론'과 의견이 일치한다.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p> <p style="text-align: center;">[반실재론에 대한 반론]</p> <p style="text-align: center;">관찰X 대상 ⇨ 인과적 속성 이해 ⇨ 관찰 가능 대상 조작 성공 = 대상의 실재성 인정</p>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갑'의 입장도 거의 동일하다. 표현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다. 지문에서는 실재성의 조건을 '관찰 가능 대상을 조작하는 것 가능'이라고 하였다면, <보기>에서는 '관찰 가능한 대상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차이가 있는 표현이겠으나, 맥락상 동일한 의미로 파악해도 괜찮다. 따라서 '갑'의 입장은 반실재론에 대한 반론이 된다. 그리고 반실재론에서는 이론적 대상의 실재 여부에 대해 '불가지론'의 태도를 보이므로, '갑'은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답은 ①번으로 결정된다.

다음은 '을'과 '병'의 입장이다. '을'과 '병'은 모두 지문에 있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을'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더 적합하게 설명한 이론이 더 우월한 이론으로 인정'받는다고 말한 것에서 '구성적 경험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병'은 '이론적 대상'은 관찰 가능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도구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사 평가원 기출] - 2021학년도 6월 모평

(가)

한국, 중국 등 동아시아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과거제는 세습적 권리와 무관하게 능력주의적인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합리성을 갖추고 있었다. 정부의 관직을 두고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공개 시험인 과거제가 도입되어,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신분이나 추천보다 시험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다.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관료 선발 제도라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과거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지위 획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개방성을 제고하여 사회적 유동성 역시 증대시켰다. 응시 자격에 일부 제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공정한 제도였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시험 과정에서 익명성의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도입한 것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를 가져왔는데, 특히 학습에 강력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확대와 지식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그 결과 통치에 참여할 능력을 갖춘 지식인 집단이 폭넓게 형성되었다. 시험에 필요한 고전과 유교 경전이 주가 되는 학습의 내용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를 이끌어 냈다. 또한 최종 단계까지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국가가 여러 특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지방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경쟁적 선발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노력했다.

동아시아에서 과거제가 천 년이 넘게 시행된 것은 과거제의 합리성이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음을 보여 준다. 과거제는 왕조의 교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적인 엘리트층의 연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성은 관료 선발 과정뿐 아니라 관료제에 기초한 통치의 안정성에도 기여했다.

과거제를 장기간 유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었다. 과거제에 대한 정보는 선교사들을 통해 유럽에 전해져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군의 유럽 계몽사상가들은 학자의 지식이 귀족의 세습적 지위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를 정치적인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심은 사상적 동향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 제도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료 선발에 시험을 통한 경쟁이 도입되기도 했다.

(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관료 선발 제도 개혁론인 유형원의 공거제 구상은 능력주의적, 결과주의적 인재 선발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함께 신분적 세습의 문제점도 의식한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17세기 무렵 관료 선발에서 세습과 같은 봉건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재도입하려는 개혁론이 등장했다. 고염무는 관료제의 상층에는 능력주의적 제도를 유지하되, 지방관인 지현들은 어느 정도의 검증 기간을 거친 이후 그 지위를 평생 유지시켜 주고 세습의 길까지 열어 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중희는 지방의 관료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초빙해서 시험한 후에 추천하는 '벽소'와 같은 옛 제도를 되살리는 방법으로 과거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제를 시행했던 국가들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과거제를 개선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시험 방식이 가져오는 부작용들은 과거제의 중요한 문제였다. 치열한 경쟁은 학문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라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학습을 하게 만들었고, 많은 인재들이 수험 생활에 장기간 매달리면서 재능을 낭비하는 현상도 낳았다. 또한 학습 능력 이외의 인성이나 실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험의 익명성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

과거제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제를 통해 임용된 관리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연결되었다. 능력주의적 태도는 시험뿐 아니라 관리의 업무에 대한 평가에도 적용되었다. 세습적이지 않으면서 몇 년의 임기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관리들은 승진을 위해서 빨리 성과를 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역 사회를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만을 중시하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개인적 동기가 공공성과 상충되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공동체 의식의 약화 역시 과거제의 부정적 결과로 인식되었다. 과거제 출신의 관리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낮고 출세 지향적이기 때문에 세습엘리트나 지역에서 천거된 관리에 비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약했던 것이다.

과거제가 지속되는 시기 내내 과거제 이전에 대한 향수가 존재했던 것은 그 외의 정치 체제를 상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사적이고 정서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소속감과 충성심을 과거제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봉건적 요소를 도입하여 과거제를 보완하자는 주장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이 아니었다. 합리적인 제도가 가져온 역설적 상황을 역사적 경험과 주어진 사상적 자원을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20. <보기>는 과거제에 대한 조선 시대 선비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것이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가: 변변치 못한 집안 출신이라 차별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과거를 통해 관직을 얻으면서 불만이 많이 해소되어 사회적 갈등이 완화된 것은 바람직하다.
- 을: 과거제를 통해 조선 사회에 유교적 가치가 광범위하게 자리를 잡아 좋다. 그런데 많은 선비들이 오랜 시간 과거를 준비하느라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다.
- 병: 요즘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 나오는 책들을 보면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만 정리되어 있어서 학습의 깊이가 없으니 문제이다. 그래도 과거제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① '가'가 과거제로 인해 사회적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능력주의에 따른 공정성과 개방성이라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② '을'이 과거제로 인해 많은 선비들이 재능을 낭비한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시험의 성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③ '을'이 과거제로 인해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에 대한 광범위한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고전과 유교 경전 위주의 시험 내용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④ '병'이 과거제로 인해 심화된 공부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본 것은, 형식적인 학습을 유발한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 ⑤ '병'이 과거제로 인해 교육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실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 방식에 주목한 것이겠군.

[정답 : ⑤]

[오답률 3위(약 40%) 예측] : 독서-사회 18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p>18.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보기 ></p> <p>(가) 공무원이 아닌 갑은 공무원인 을이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건물인 것처럼 가옥 대장에 기재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p> <p>(나) 병은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할 것을 친구 정에게 지시하였고 정은 이를 실행하여 범행을 저질렀다.</p> </div> <p>① 갑과 병은 모두 신분범에 가담한 자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되겠군.</p> <p>② 갑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자이므로 공문서위조죄의 종범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되겠군.</p> <p>③ 을은 공문서위조죄가 요하는 구성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위조죄보다 중하게 처벌 되겠군.</p> <p>④ 병은 존속폭행죄가 요하는 가중적 신분에 해당하므로 존속폭행죄의 교사범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되겠군.</p> <p>⑤ 정은 존속폭행죄가 요하는 가중적 신분에 해당하는 병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존속폭행죄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되겠군.</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②]</p>
[Killer-Point]	<p>일단 <보기>의 상황과 연결되는 지문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먼저 (가)의 상황은 공무원 '을'이 '공문서 위조죄'를 저지른 상황이고, '갑'은 여기에 도움을 준 상황이다. 따라서 '을'은 '진정신분범'의 '구성적 신분'을 가지는 것이고, '갑'은 해당 범죄의 종범이 된다. 다음은 (나)의 상황을 정리해보자. 여기서 헛갈리면 안 된다. '병'이 자신의 아버지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만약 '병'이 직접 폭행했다면 '존속폭행죄'로 '비진정신분범'의 '가중적 신분'을 가지겠으나, 직접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존속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병'의 범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존속 폭행죄가 아닌 일반 폭행죄의 '교사범' 정도일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정'도 일반 폭행죄로 처벌받을 것이다. 여기까지 판단이 가능했다면, 정답 선지를 고를 수 있다.</p> <p>2번 선지를 보자. '갑'은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자'로 볼 수 있다. '을'의 범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고, '갑'은 이 범죄의 종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문에서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종범/교사범'에 대한 법규가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갑'은 공문서위조죄의 종범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될 것임을 알 수 있다.</p> <p>위의 상황 정리에서 눈치챈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지문에 제시된 2가지 견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가지 견해는 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견해인데, 이 '단서'는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즉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에 대해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서는 '부진정신분범'의 상황을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단서에 대한 견해를 다룰 필요가 없다.</p>
[유사한 사례] - 2016년도 4월 학평	
	<p>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p>

한다. 만약 청약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착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을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승낙기간: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가)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답장을 4월 12일에 발송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을의 답장은 4월 22일에 도착했다.
-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맞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 이후 정은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로 30만 원을 은행에 지불했다.

- ① (가)에서,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4월 12일에 성립한다.
- ②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착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 된다.
- ④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 ⑤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정답 : ④]

[오답률 2위(약 48%) 예측] : 독서-사회 19번 문항 (구체적인 것은 지문 분석 때!)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Killer-Point]	<p>19. 밑글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 < 보기 > —</p> <p>업무상배임죄는 일반적인 배임죄와 달리 회사의 대표이사과 같이 특정 직무상 타인을 위해 임무를 맡은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에게 일을 맡긴 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인 배임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된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 가담한 비신분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조의 단서가 적용된다.</p> </div> <p>① 업무상배임죄는 부진정신분범이 아니라 진정신분범이다. ②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을 받는 자는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 신분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와 대표이사 아닌 자가 함께 협력하여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한 경우, 각각에 대한 처벌은 동일하다. ④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도운 경우, 대표이사가 아닌 자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받는다. ⑤ 대표이사가 아닌 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교사한 경우, 대표이사는 일반적인 배임죄의 교사범에 대한 처벌 법규로 처벌받는다.</p> <p style="text-align: right;">[정답 : ②]</p> <p>'배임죄'라는 단어만 보고 지문에서 '배임죄'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연결시켜서 생각했으면 답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보기>에서 '일반적인 배임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구분해서 제시하였기 때문에 둘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p> <p>'업무상 배임죄'가 '일반적인 배임죄'와 다른 것은 '특정 신분을 가진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일을 맡긴 주체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상 배임죄'도 '신분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p> <p>그럼 이제 '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범죄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배임죄'가 '진정신분범'인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배임죄'도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행위자의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업무상 배임죄'는 '진정신분범'인 동시에 '부진정신분범'에도 해당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신분 때문에 일반적인 배임죄에 비해 가중 처벌이 이루어진다. 이는 업무상 배임죄가 가중적 신분을 요구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p> <p>진정신분범은 '구성적 신분'을 요하고, 부진정신분범은 '가중적 신분'을 요하니, 진정신분범인 동시에 부진정신분범인 '업무상 배임죄'의 행위자는 '구성적 신분'과 '가중적 신분'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p>

[오답률 1위(약 55%) 예측] : 독서-기술 40번 문항

[지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보기>의 상황 분석]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같은 서로 다른 소재로 유사 게이트 부분을 만든 FET 바이오센서 A와 B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바이러스 V의 유전 물질 농도를 1단위씩 높여 가며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단, 다른 실험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잡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V의 유전 물질 농도	0	1	2	3
A	전류의 양	0.9	4.0	7.1	10.1
B	전류의 양	0.9	2.0	3.1	4.1

- ① A는 B와 달리 선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군.
- ② B는 A에 비해 민감도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 주는군.
- ③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B가 A에 비해 표적 물질의 농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군.
- ④ 잡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전류의 변화량이 동일하다면, A가 B에 비해 표적 물질의 농도의 측정값이 더 크게 왜곡되겠군.
- ⑤ 잡음 발생이 없고 유전 물질의 농도가 0이 아니면서 동일하다면, B에서보다 A에서 유전 물질과 바이오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군.

[정답 : ⑤]

[Killer-Point]

1~3번 선지까지의 판단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나, 4, 5번 선지는 판단이 어려웠을 수 있다. 특히 4번 선지는 별 생각 없이 보면 3번 선지와 배타적인 선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4번 선지를 골라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을 것이다.

4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지에서 물어보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선지에서 조건으로 둔 상황은 '잡음 발생 ⇨ 전류 변화량 동일'이고, 물어보는 것은 표적 물질 '농도의 측정값'이 누가 더 크게 왜곡되는냐이다.

즉 '농도 변화'에 따른 '전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전류 변화'에 따른 '농도 변화'를 봐야 하기 때문에 생각을 뒤집을 필요가 있다.

A와 B에서 측정된 전류의 양이 0.9인 상태, 즉 농도가 0인 상태를 생각해보자. 여기서 잡음이 발생해서 실제 농도의 변화는 없는데 전류의 양이 둘 다 1.1만큼 높게(2.0) 측정이 되면, 농도의 측정값은 A와 B에서 어떻게 나타날까? A에서는 전류의 양이 4.0이 되어야 농도가 1이라고 보기 때문에 농도의 측정값이 '1보다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면 B에서는 전류의 양이 2.0이 되면 농도의 측정값을 1로 보므로, 농도의 측정값이 '1'로 나타날 것이다. B가 A에 비해 농도의 측정값이 더 크게 왜곡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5번 선지를 보자. 5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2번 선지부터 정확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민감도'는 농도 변화에 따른 전류 변화가 클수록 높다. 따라서 A가 B보다 민감도가 높다.

그리고 4문단에서 유사 게이트 부분의 크기를 줄이면 표적 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작아져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한 것을 볼 때, 유전 물질과 바이오 수용체의 상호작용과 바

이오 수용체의 민감도 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면적이 크다는 것은 접촉하는 부위가 넓다는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질-수용체 상호작용 ↑ ⇒ 민감도 ↑

앞에서 보았다시피 A, B 중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은 A이므로, A에서 유전 물질과 바이오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사례] - 2018년도 10월 학평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산화 탄소의 배출량이 적고 열효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좋다. 하지만 디젤 엔진은 미세 먼지로 알려져 있는 입자상 물질과, 일산화 질소나 이산화 질소와 같은 질소 산화물을 많이 발생시킨다. 이런 물질들은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각종 호흡기 질환, 광화학 스모그나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에 따라 디젤 엔진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입자상 물질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DPF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로 포집하고, 필터에 쌓인 물질들을 일정 시점에 연소시켜 제거함으로써 필터의 기능을 회복한다. 포집된 입자상 물질을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포집 필터까지 연료가 흘러 들어갈 수 있게 엔진 실린더에 연료를 공급해야 한다. 연료가 공급이 되면 배기가스에 연료가 섞여 필터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DPF 방식은 엔진을 특별히 개선할 필요 없이 연료를 추가적으로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이 용이한 반면 연비가 떨어진다. 또한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질소 산화물을 저감하는 기술로는 EGR 방식이 있다. 이 방식은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킨 다음, 연료를 배기가스와 함께 연소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배기가스를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까닭은 연료가 낮은 온도에서 연소될 때 질소 산화물의 발생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소 온도를 낮추면 입자상 물질이 많이 배출되므로 EGR 방식은 DPF 방식과 함께 쓰인다. EGR 방식은 엔진에 불순물이 쌓일 수 있고, 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EGR 방식보다 질소 산화물의 저감 효율이 높은 SCR 방식이 개발되어 EGR 방식을 대체하고 있다. SCR 방식은 배기가스를 재순환시키지 않기 때문에 EGR 방식보다 엔진에서의 연소 온도가 높다. 이렇게 하면 입자상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대신 질소 산화물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SCR 방식은 암모니아를 이용하여 질소 산화물을 저감한다. 그런데 암모니아는 폭발의 위험이 있고 금속을 부식시킬 수도 있으며 상온에서는 특유의 자극적인 냄새를 풍겨 불쾌감을 유발한다. 그래서 사용에 제약이 있으며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SCR 방식에서는 요소를 물에 녹인 요소수를 공급하는 요소수 탱크와 공기를 공급하는 압축 공기 주입기를 별도로 사용하여 SCR 장치에서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요소는 열분해를 통해 암모니아와 아이소사이안산으로 분해되고, 아이소사이안산은 가수 분해* 되어 이산화 탄소와 암모니아를 생성한다. 일산화 질소는 이렇게 얻어진 암모니아와 함께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하여 질소와 물로 바뀐다. 그리고 이산화 질소는 일산화 질소와 함께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역시 질소와 물로 바뀐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SCR 장치 내부는 반응 물질을 흡착시키는 백금이나 바나듐 등을 이용한 금속 촉매로 만들어져 있다. SCR 방식에서는 이러한 촉매의 표면에 배기가스가 오래 머물도록 해 주어야 저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즉 공간 속도를 느리게 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여기서 공간 속도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배기가스의 양을 SCR 장치의 촉매의 부피로 나눈 값이다.

SCR 방식은 저감 효율이 높아 이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해결해야 할 문제도 안고 있다. 암모니아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는 암모니아 슬립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요소의 분해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면 고체 형태의 아멜린이나 멜라민 등이 생성되어 배관 내부나 장치 표면에 고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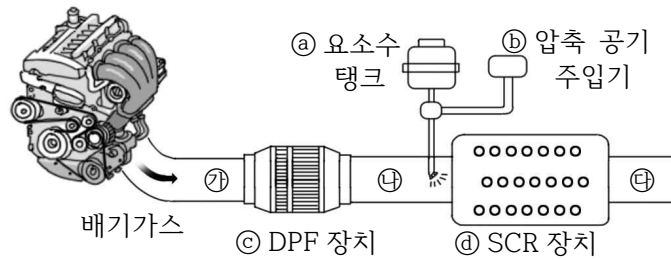
* 가수 분해: 큰 분자가 물과 반응하여 몇 개의 이온이나 분자로 분해되는 반응.

30.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다음 표는 연소 온도에 따라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고, 저감 장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 산화물의 농도가 달라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배기가스 온도 (°C)	㉑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㉒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 (ppm)	저감률 (%)
190	151	37.7	75
362	176	0.89	99.4
388	355	0.44	99.8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

- ① 배기가스 온도가 190 °C일 때 ㉑로 배출된 입자상 물질은 ㉒를 거치면서 저감되겠군.
- ② ㉓에서 ㉔로 공급된 요소가 ㉒에서 열분해와 가수 분해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될 수 있겠군.
- ③ ㉑를 거치고 남아 있는 입자상 물질은 ㉒를 거치게 되면서 저감되기 때문에 ㉑에 비해 ㉒의 입자상 물질이 적겠군.
- ④ ㉒에서 일산화 질소가 암모니아와 반응하여 물과 질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㉔를 통해 공급된 공기가 필요하겠군.
- ⑤ 배기가스 온도가 388 °C일 때 ㉑에서의 질소 산화물 농도가 높은 것은 연료가 높은 온도에서 연소될수록 질소 산화물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겠군.

[정답 : ③]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① 문법

[참고] 문법의 경우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풀고 나서 자신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항을 풀기 위해 알았어야 하는 개념들을 스스로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음운의 변동]

음운 변동의 유형

- ① 교체 : 어떤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 (A+B → A+C)
- ② 탈락 : 어떤 음운이 없어지는 음운 변동 (A+B → A)
- ③ 첨가 :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음운 변동 (A+B → A+'C'+B)
- ④ 축약 : 두 음운이 하나로 합쳐지는 음운 변동 (A+B → C)

1. 교체

(1) 비음화

① 비음(동)화 : 파열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ㅁ’ 앞에서 비음 ‘ㅇ, ㄴ, ㅁ’으로 바뀌는 현상

파열음	환경(비음)	결과	예시
ㄱ	ㄴ, ㅁ 앞	[ㅇ]	국물[궁물], 낚는다[낙는다→낭는다], 부역문[부억문→부영문]
ㄷ	ㄴ, ㅁ 앞	[ㄴ]	닫는[단는], 걸모양[견모양→건모양], 쫓는[쫘는→쫘는]
ㅂ	ㄴ, ㅁ 앞	[ㅁ]	밤물[방물], 앞니[압니→암니], 값만[갑만→감만]

② ‘ㄹ’의 비음화 : ‘ㄹ’이 다른 자음 뒤에서 ‘ㄴ’으로 바뀜(①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유음	환경	결과	예시
ㄹ	ㄹ 이외의 자음 뒤	[ㄴ]	담력[담녁], 종로[종노], 대통령[대:통녕], 협력[협녁→협녁], 막론[막논→망논]

(2) 유음화(교체) : ‘ㄴ’이 앞이나 뒤에 오는 유음 ‘ㄹ’의 영향으로 유음 ‘ㄹ’로 바뀌는 현상

비음	환경	결과	예시
ㄴ	ㄹ 앞이나 뒤	[ㄹ]	신라 → [실라], 물난리 → [물랄리], 똥는 → [똥는 → 똥는]

(3) 된소리되기(교체) : 예사소리였던 것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 된소리되기는 매우 생산적인 음운 변동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조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의 규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 / ①, ②, ③

① ㄱ, ㄷ, ㅂ 뒤

예) 국밥 → [국뽕], 꽃병 → [꽃뽕], 값도 → [갑또]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ㄱ, ㄷ, ㅂ’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② 어간의 끝 자음 ㄴ, ㄹ 뒤

예) (동생)을 안고 → [안꼬], (신발)을 신고 → [신꼬], (의자)에 앉고 → [안꼬]

- ‘자음군 단순화’를 겪은 후의 ‘ㄴ, ㄹ’ 뒤에서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체언의 끝 자음 ‘ㄴ, ㄹ’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신고(申告)[신고]

- 피동, 사동 접사 ‘-가’의 첫 자음은 이 변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예) 안기대[안기대]: 안 + -가 + -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뒤

예) 할 것을 → [할꺼슬], 갈 데가 → [갈떼가], 만날 사람 → [만날싸람]

-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를 하나의 말토막으로 발음할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 ‘-ㄹ걸’, ‘-ㄹ밖에’, ‘-ㄹ게’, ‘-ㄹ수록’, ‘-ㄹ세라’, ‘-ㄹ지라도’ 등은 하나의 어미로 굳어진 형태로, 발음상으로 된소리되기를 겪는다.

④ ㄷ, ㅅ, ㅈ → [ㄸ, ㅆ, ㅉ] /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

예) 갈등 → [갈똥], 말살 → [말쌀], 열정 → [열똥]

2. 탈락

(1) ‘ㄹ’ 탈락 :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몇몇 어미와 결합할 때 ‘ㄹ’이 탈락하거나(규칙 활용), 합성이나 파생의 과정에서 앞말의 끝소리 ‘ㄴ, ㄷ, ㅅ, ㅈ’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받침	환경	결과	예시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	① 어미 첫 자음 ㄴ, ㅅ ②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③ 어말 어미 -ㅂ시다, -ㅂ니다, -(으)오	[∅]	살다 : 살- + -느냐 → [샤:느냐], 살- + -세 → [샤:세] 울다 : 울- + -는 → [우는], 울- + -시다 → [우시다]
합성이나 파생	ㄴ, ㄷ, ㅅ, ㅈ 앞에서	[∅]	딸 + -님 → [따님], 열- + -닫- + -이 → [여:다지], 활 + 살 → [화살], 바늘 + -질 → [바느질]

3. 축약

(1) 거센소리되기 (자음 축약)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

ㅎ + ㄱ, ㄷ, ㅂ, ㅅ → [ㅋ, ㅌ, ㅍ, ㅊ] 예) 놓고 → [노코], 안던 → [안턴], 싫지 → [실치]

ㄱ, ㄷ, ㅂ, ㅅ + ㅎ → [ㅋ, ㅌ, ㅍ, ㅊ] 예) 낙하산 → [나카산], 말형 → [마텟], 값 흥정 → [가퐁정]

-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를 거친 자음이 거센소리되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4. 첨가

- (1) ㄴ 첨가 :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현상
- 두 단어나 구를 휴지 없이 발음할 때에도 ‘ㄴ’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 ‘ㄴ’ 첨가 현상과 동일한 환경을 갖추어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 석유 → [서규], 송별연 → [송 : 벼련]

∅ → [ㄴ] / 받침 자음 + ㅣ 또는 반모음 [i] 예) 맨- + 입 → [맨닙], 색 + 연필 → [생년필]

[선택지 해설]

13. ㉔

막일	막일 → 막닐 → [망닐] ㄴ첨가 비음화
만형	만형 → [마텃] 거센소리되기
칼날	칼날 → [칼랄] 유음화
옆집	옆집 → 엽집 → [엽찹]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되기
따님	딸 + 님 → [따님] ㄹ탈락

정답해설 답은 ㉔야. ‘만형’에서는 ‘ㄷ’과 ‘ㅎ’이 만나 ‘ㅌ’으로 축약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서 [마텃]이 돼. 그러므로 ‘텃’은 축약의 결과가 맞아. 이러한 ‘텃’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 자음’이야. 그리고 ‘형’의 음절 유형 또한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같아.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먼저 ‘막일’에서는 첨가인 ㄴ첨가가 일어나서 ‘막닐’이 된 후, 앞 음절 종성 ‘ㄱ’과 뒤 음절 초성 ‘ㄴ’이 만나 ‘ㄱ’이 ‘ㅇ’으로 교체되는 비음화가 일어나서 [망닐]이 돼. 즉, ‘닐’은 첨가의 결과가 맞아. 이러한 ‘닐’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 자음’이야. 하지만 ‘일’은 ‘모음 + 자음’이야. 초성의 ‘ㅇ’은 음가가 없는 ‘ㅇ’으로 음운이 없는 걸로 생각해야 해. 즉, ‘닐’과 ‘일’은 음절 유형이 달라.
- ③을 살펴보자. ‘칼날’에서는 앞 음절의 종성 ‘ㄹ’과 뒤 음절의 초성 ‘ㄴ’이 만나 ‘ㄴ’이 ‘ㄹ’로 교체되는 유음화가 일어나서 [칼랄]이 돼. 그러므로 ‘랄’은 교체의 결과가 맞아. 이러한 ‘랄’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 자음’이며, ‘날’의 음절 유형도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둘의 음절 유형은 같아.
- ④를 살펴보자. ‘옆집’에서는 먼저 교체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서 ‘ㅍ’이 ‘ㅂ’으로 바뀌어 ‘엽집’이 돼. 그 후, 앞 음절 종성의 안울림소리 ‘ㅂ’과 뒤 음절 초성의 안울림소리 ‘ㅈ’이 만나 ‘ㅈ’이 된소리 ‘ㅉ’으로 교체되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서 [엽찹]이 돼. 그러므로 ‘찹’은 교체의 결과야. 이러한 ‘찹’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 자음’이며, ‘집’의 음절 유형도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같아.
- ⑤를 살펴보자. ‘따님’은 본래 ‘딸+님’이야. ‘딸’과 ‘님’이라는 형태소가 합쳐지면서 앞 음절 종성 ‘ㄹ’이 탈락해서 [따님]이 되었어. 그러므로 ‘따’는 탈락의 결과야. 이러한 ‘따’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이며 ‘딸’의 음절 유형은 ‘자음 + 모음 + 자음’으로 둘의 음절 유형은 달라.

[14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안은 문장]

안은 문장 : 안긴 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안긴 문장 :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으로, ‘절’이라고도 한다.

(1) 명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문장(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의 역할)

표지	예
① 명사형 어미 ‘-(으)ㄴ’	나는 <u>승모가 모범생임을</u> 안다. 우리 <u>등반대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음이</u> 확인되었다.
② 명사형 어미 ‘-기’	<u>우리는 승모가 성공하기를</u> 기대했다. <u>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가</u> 너무 어렵다.

(2) 부사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

표지	예
① 부사형 어미 ‘-게’	엄마가 아이를 <u>입이 마르게</u> 칭찬했다.
② 부사형 어미 ‘-도록’	태현이는 <u>다리가 붓도록</u> 걸었다.
③ 부사형 어미 ‘-아서/어서’	나는 <u>영지가 잡아서</u> 하루 더 머물렀다.
④ 부사형 어미 ‘-듯이’	나그네가 <u>달이 구름에 가듯이</u> 간다.
⑤ 부사형 어미 ‘-수록’	<u>해가 갈수록</u>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⑥ 부사 파생 접미사 ‘-이’	그 사람이 <u>말도 없이</u> 갔다.

(3) 관형절로 안긴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관형어처럼 쓰이는 문장

표지	예
① 관형사형 어미 ‘-(으)ㄴ’ : 과거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은</u> 사람이 없다.
② 관형사형 어미 ‘-는’ : 현재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는</u> 사람이 없다.
③ 관형사형 어미 ‘-(으)ㄹ’ : 미래	이 배에는 <u>고기를 잡을</u> 사람이 없다.
④ 관형사형 어미 ‘-던’ : 회상	이 배에는 <u>고기를 잡던</u> 사람이 없다.

[참고]

관계 관형절	개념 : 관형절의 문장 성분 중 주절에 있는 동일 요소가 생략되는 관형절
	예) <u>학교에 가는</u> 철수를 보았다. → 관형절 ‘(철수가) 학교에 가는’에서 주어 생략 철수가 쓴 글을 읽었다. → 관형절 ‘철수가 (글을) 쓴’에서 목적어 생략 파도의 자취가 새겨져 있는 바위가 있다. → 관형절 ‘파도의 자취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에서 부사어 생략
동격 관형절	개념 : 관형절과 관형절이 수식하는 체언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관형절 / 생략되는 문장 성분이 없음
	예) 나는 <u>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u> 사실을 알고 있다. → 관형절 ‘철수가 어제 수지를 만난’과 ‘사실’이 동일한 의미

- (4) 서술절을 안은 문장 : 절 전체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문장.(절 표시가 없음.)
 예) 코끼리가 코가 길다. 서울은 인구가 많다.

- (5) 인용절을 안은 문장 : 화자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의 말 등을 옮긴 문장

표지	예
① 직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라고’, ‘하고’	나는 “ <u>날씨가 너무 더워!</u> ”라고 소리쳤다. 폭풍으로 나무가 “ <u>쿵!</u> ”하고 쓰러졌다.
② 간접 인용절 : 인용격 조사 ‘고’	선생님이 나에게 <u>저 가방에는 무엇이 있냐고</u> 물었다. 철수가 영희에게 <u>숙제를 보여달라고</u> 했다.

2.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문장

- (1)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 대등적 연결어미로 형성

- 나열 (-고, -(으)며)
 예) 꽃이 피고 새가 운다. 철수는 서울로 가고 영희는 부산으로 간다. 떡은 쌀가루로 만들며 빵은 밀가루로 만든다.
- 대조 (-지만, -(으)나) 예) 절약은 부자를 만드나 절제는 사람을 만든다.
- 선택 (-든지) 예)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정하자.

- (2)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종속적 연결어미로 형성

- 조건 (-(-으)면, -거든, -어야) 예)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원인 (-(-으)니, -(으)니까, -어서) 예) 비가 와서 길이 질다.
- 의도 (-(-으)러, -(으)려고, -고자) 예) 소풍을 가려고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 양보 (-더라도, -(으)ㄹ지라도) 예) 설령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출발할 것이다.

[참고 자료][문장 출제 요소 정리]

	절 표시(전성 어미)	출제 요소
명사절	-음, -기	역할 : 주어, 목적어, 부사어(격 조사로 판단), 보어(보기 힘듦) 관형어(순간적인 착각이나 함정 주의) <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 예시) <보기> : (승모가 거짓말을 했음)이 밝혀졌다. → (판단) 명사절이 주어 역할 → (선택지 출제) ① 주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p>나는 (너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 → ②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승모는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 명사절이 부사어 역할 → ③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p> <p>그는 (비가 오기) 전에 떠났다. → 명사절이 관형어 역할(-기 전) → ④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함정 주의) [보통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는 선택지를 보면 관형절을 떠올리기 마련, 명사절도 있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자. 만약 번거롭다면 ‘-기 전’을 외워두고 명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라고 기억해두자.]</p>
관형절	은, -는, -던, -ㄹ	<p>1)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3) 생략 여부 : 안긴 문장의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생략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는 관형절 : 관계 관형절(중요) - 안긴 문장의 한 성분이 생략되지 않는 관형절 : 동격 관형절(잊지 말기)</p> <p style="text-align: center;"><보기> → <판단> → <선택지> 순서대로</p> <p>예시) <보기> : (예쁜) 꽃이 피었다. → (<판단>) ‘-ㄹ’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꽃을 집어넣는다. / 꽃이 예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선택지 출제> ①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 그는 (좁은) 길을 혼자 걸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길을 집어넣는다. / 길이 좁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주어가 생략된 것. → ② 주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다. → ‘-는’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음식’을 집어넣는다. / 우리가 음식을 좋아하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생략된 것. → ③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승모가 밥을 먹은) 식당은 학원 앞에 있다. → ‘-은’을 보고 관형절 / 수식받는 체언인 식당을 집어넣는다. / 승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였을 것이므로 안긴 문장의 부사어가 생략된 것. → ④ 부사어가 생략된 안긴 문장이 있고.</p> <p>우리는 (그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동격 관형절 / 생략X)</p>
부사절	-게, -도록, -듯이, -니까 -이(부사 파생 접미사)(없이, 같이, 달리)	<p>1)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이(부사 파생 접미사) 없이, 같이, 달리처럼 ‘-이’가 결합되어 부사가 된 단어의 경우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p> <p>(사람들이 앉게) 어서 일어나자 → 부사절 승모는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 부사절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 → 원래 ‘소리가 없다’ 즉 절이다. ‘소리도 없이’가 ‘내린다’라는 용언을 꾸민다. 즉 부사절이다. ‘없이’는 부사이지만 예외적으로 안긴 문장의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p>

		<p>1)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경우, 앞절이 뒷절 사이로 들어가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로 보기도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와서 차가 막힌다.(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 차가 (비가 와서) 막힌다.(‘비가 오다’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 역할) <p>2) 인용절 역시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모는 (날씨가 참으로 덥다고) 되뇌었다.(인용절 / 부사어의 역할) <p>이처럼 부사절은 범위가 넓다. 따라서 절이 용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라는 판단만 해주면 된다.</p>
서술절	X(문장 형태에 익숙해지기)	<p>1)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이 있느냐 2) 안긴 문장에 부사어가 있느냐 3) 보어가 있는 홑문장과 구분할 수 있느냐</p> <p>이 집은 (베란다가 넓다.) 이 집은(문장 전체 주어) (베란다(주어) 넓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p> <p>친구는 (얼굴이 많이 변했다). 친구는(문장 전체 주어) (얼굴이(주어) 많이 변했다.(서술어))(문장 전체 서술어) → 서술절 /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 문장. / 안긴 문장 안에 부사어가 있느냐(많이)</p> <p>승모는 돼지가 아니다.(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p> <p>이번 실패는 어느 한 사람의 탓이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 이/가는 보어 / 홑문장)</p>
인용절	라고(직접 인용), 고(간접 인용)	<p>직접 ⇔ 간접 바꿔보기 승모는 밥을 잘 먹었다고 말했다.(간접 인용 / 부사어의 역할)</p>

[선택지 해설]

14. ④

㉠	철수와 영희는 [창밖에 비가 내림]에도 소풍을 간다. 명사절(부사어 역할)
㉡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는] 철수에게 소리쳤다. 관형절(주어 생략)
㉢	영희가 철수에게 [창밖에 비가 내린다고] 소리쳤다. 인용절(부사어 역할)
㉣	철수가 [바람이 부는] 창밖을 바라본다. 관형절(부사어 생략)
㉤	창밖에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분다. →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정답해설 답은 ④야. 이 선지에서 과제는 자료 문장에 ‘부사절을 안은문장’을 추가해서 겹문장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그 결과인 ㉠을 보자. ㉠의 ‘철수가 바람이 부는 창밖을 바라본다.’의 안은문장은 ‘철수가 창밖을 바라본다.’야. 그럼 ‘바람이 부는’이라는 문장이 안긴문장이네. ‘바람이 부는’은 본래 ‘바람이 분다.’라는 문장에서 종결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으로 바뀐 뒤 안겨서 안은문장의 체언인 ‘창밖’을 꾸미고 있어. 문장에서 체언을 꾸미는 건 관형어고, ‘바람이 부는’에도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즉, ‘바람이 부는’은 ‘관형절로 안긴문장’이야. 그러므로 ‘철수가 바람이 부는 창밖을 바라본다.’는 부사절을 안은문장이 아니라 관형절을 안은문장이야.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이 선지에서 과제는 자료 문장에 ‘명사절을 안은문장’을 추가해서 겹문장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그 결과인 ㉠을 보자. ㉠의 ‘철수와 영희는 창밖에 비가 내림에도 소풍을 간다.’의 안은문장은 ‘철수와 영희는 소풍을 간다.’야. 그럼 안긴문장은 ‘창밖에 비가 내림’이 안긴문장이네. ‘창밖에 비가 내림’은 본래 ‘창밖에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에서 종결 어미가 명사형 전성 어미 ‘-(으)ㄴ’으로 바뀐 뒤 안겨서 뒤에 부사격조사 ‘에’와 보조사 ‘도’가 붙었어. 즉 ‘창밖에 비가 내림’이라는 명사절이 문장에서 부사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야.
- ②를 살펴보자. 이 선지에서 과제는 자료 문장에 ‘관형절을 안은문장’을 추가해서 겹문장을 만들라는 거야. 그럼 그 결과인 ㉡을 보자. ㉡의 ‘영희가 창밖을 바라보는 철수에게 소리쳤다.’에서 안은문장은 ‘영희가 철수에게 소리쳤다.’야. 그럼 ‘창밖을 바라보는’이라는 문장이 안긴문장이네. ‘창밖을 바라보는’은 본래 ‘철수가 창밖을 바라본다’라는 문장에서 안긴문장과 같은 부분인 ‘철수’가 삭제되고, 종결 어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으로 바뀐 뒤 안겼어. 그리고 안은문장의 체언인 ‘철수’를 꾸미고 있어. 즉, ‘창밖을 바라보는’은 ‘철수’라는 체언을 꾸미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형절이야.
- ③을 살펴보자. 이 선지에서 과제는 자료 문장에 ‘인용절을 안은문장’을 추가해서 겹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 결과인 ㉢을 보자. ㉢의 ‘영희가 철수에게 창밖에 비가 내린다고 소리쳤다.’의 안은문장은 ‘영희가 철수에게 소리쳤다.’야. 그럼 ‘창밖에 비가 내린다고’라는 문장이 안긴문장이네. ‘창밖에 비가 내린다고’는 본래 ‘창밖에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에 간접 인용격 조사인 ‘-고’가 붙어서 만들어진 인용절이야.
- ⑤를 살펴보자. 이 선지에서 과제는 자료 문장에 문장을 더해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 결과인 ㉤을 보자. ㉤의 ‘창밖에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분다.’에서 두 홑문장은 ‘창밖에 비가 내린다.’와 ‘창밖에 바람이 분다.’야. 이 두 문장은 연결 어미인 ‘-며’에 의해 연결되고 있어. 이 겹문장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확인해보려면 두 홑문장의 앞뒤를 바꾸어보는 게 가장 빠르고 쉬워. 바꾸면 ‘창밖에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다.’야. 바꾸어도 문장의 의미는 그대로야. 앞 뒤 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되었을 때 두 문장은 앞뒤로 바꾸어도 의미 변화가 없지. 그러므로 ‘창밖에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분다.’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맞아.

[15번][문제를 풀기위해 알아야 할 개념 정리]

명사 파생 접미사 vs 명사형 전성 어미		
	명사 파생 접미사 : -(으)ㄴ, -기	명사형 전성 어미 : -(으)ㄴ, -기
품사	명사	동사 / 형용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② 서술성이 없음 ③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사어의 수식을 받음 ② 서술성이 있음 ③ 선어말 어미 ‘-시-’가 결합할 수 있음 ④ 다른 어미(-다, -고, -며)로 대체 가능

: 명사 파생 접미사는 어근의 뒤에 붙어 해당 단어의 품사를 ‘명사’로 바꾸어 주며, 명사형 전성 어미는 어간의 뒤에 붙어 해당 단어의 품사는 그대로 두고, 단어가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

㉠ 나는 그의 멋있는 웃음이 좋다.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서술성이 없음
 → 웃- + (으)ㄴ (명사 파생 접미사), 품사는 ‘명사’
 그는 크게 웃음으로써 분위기를 바꾸었다. - 관형어의 수식을 받음 / 서술성이 있음
 → 웃- + (으)ㄴ (명사형 전성 어미), 품사는 ‘동사’

[선택지 해설]

15. ㉔

정답해설 답은 ㉔야. ‘얼음이 얼’에서 ‘얼음’과 ‘얼’을 분석해보자. 일단 ‘얼음’과 ‘얼’ 모두 동사 ‘얼다’의 어근이자 어간인 ‘얼-’ 뒤에 다른 형태소가 붙은 거야. 먼저 ‘얼음’은 ‘얼-(어근) + -(으)ㅁ(명사형 파생 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으며,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어. 그리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굳어진 물질’이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 이에 본래 단어인 ‘얼다’가 가지던 서술성은 잃어버렸어. 더불어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으므로 이 ‘얼음’을 수식하는 것은 ‘관형어’가 되어야 해. 예를 들어 ‘차가운 얼음’ 등이 가능하겠지. 반면 ‘얼’은 ‘얼-(어간) + -(으)ㅁ(명사형 전성 어미)’로 분석할 수 있어. 그리고 ‘얼’은 본래 단어인 ‘얼다’의 의미인 ‘액체나 물기가 있는 물체가 찬 기운 때문에 고체 상태로 굳어지다.’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본 단어의 서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에 ‘얼’의 품사는 그대로 동사이며, 이는 단지 동사 ‘얼다’의 활용형에 해당해. 그럼 당연히 이 ‘얼’을 수식하는 건 부사어가 되겠지. 예를 들어 ‘차갑게 얼’을 들 수 있어. 자, 이제 선지 ㉔를 살펴보자. ‘얼음’은 품사가 동사에서 명사로 변했으므로 관형어의 수식을, ‘얼’은 동사에서 품사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부사어의 수식을 받아야 해.

[오답풀이]

- ①을 살펴보자. ‘얼음’은 ‘얼-(어근) + -(으)ㅁ(명사 파생 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어.
 ②를 살펴보자. ‘얼’은 ‘얼-(어간) + -(으)ㅁ(명사형 전성 어미)’로 분석할 수 있어.
 ③을 살펴보자. ‘얼’은 어간 뒤에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것으로 동사 ‘얼다’의 활용형에 해당해. 그러므로 사전에 실려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의 의미를 찾으려면 기본형인 ‘얼다’를 찾아야 해.
 ④를 살펴보자. ‘얼음’은 ‘얼-(어근) + -(으)ㅁ(명사 파생 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어. 파생 접미사는 어근에 붙어서 품사를 바꿈과 동시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사전에 등재가 되겠지.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② 문학

[참고] 모의고사로 문제를 풀어 본 김에 EBS 연계 작품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버리지 말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따로 EBS 연계를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출제 될 때마다 공부해두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고전산문 [20~22번 지문] [권필, ‘주생전’]

“남궁은 절친자매의 잘못을 변호했고 저는 하층지옥의 잘못을 변호했습니다. 불행도 하루아침에 우리 정사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천성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지...”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238p) #사용설명서(235p)

[작품 ‘한눈’에 보기]

[EBS 작품 풀이]

이 작품은 권필이 지은 전기 소설이다. 인물, 사건, 배경 등이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비현실적인 성격에서 벗어나 **현실적 면모를 많이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 전기 소설과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삼각관계를 중심으로 남성의 이기적인 모습, 여성의 질투심 등을 가감 없이 드러내어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을 부각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ip] 그렇다면 전기소설적인 모습은?

- ▶ **운명의 비극성** : 공부하고 있던 시절만 해도 다른 사람들의 우려를 받을 정도의 능력이 있던 주생이 겪은 여러 번의 낙방과, 그토록 사랑하던 선화와 혼약을 하자마자 전쟁 발발로 징병이 되는 등의 모습은 **전기 소설의 비극적 운명**을 환기시킨다.

→ **[EBS 238p]** 전기 소설의 사랑은 대체로 영속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승을 떠난 존재나 인간이 아닌 존재 등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수 없는 존재와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주제 세 남녀의 사랑과 이별

[작품 줄거리]

중국 명나라 때 주생이라는 인물은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강호를 유랑하다가, 고향에 이르러 어릴 적 벗이었던 기생 배도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주생은 배도가 자주 드나드는 노 승상 댁에서 승상의 딸 선화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이를 알아차린 배도는 사랑을 잃은 괴로움에 병이 들어 죽는다. 주생은 어렵사리 선화와 혼인을 약속하지만, 임진왜란이 일어나 종군 서기로 징발되어 선화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조선에 오게 된다. 작가는 주생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긴다.

[tip] 배도의 사랑

“비록선대, 남궁께서는 훗날 입신하여 알찍 호로에 오르실지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적(기적이 적힌 명판)에서 배배씨 조상의 이름을 대입하지 않게만 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 뒤에 비록 저를 버리고 끝내 보지 않으시더라도 남궁의 은혜에 감사할 겨를도 없는데, 저가 어떻게 감히 남궁을 원망하겠습니까?”

훗날 입신을 하여 기적에서 빠준다면 자신을 버려도 괜찮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배도의 사랑은 다소 조건적인 사랑임을 알 수 있다. 즉 배도에게 있어서 주생은 **기생이란 직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 것이다.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권필의 「주생전」은 남자 주인공이 두 여성을 사랑하는 애정 소설로, 삼각관계로 인한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은 두 여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유부단한 남성을 중심으로, 떳떳하지 못한 사랑으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 이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결연에 대한 갈망, 여성 인물들의 질투심 등의 내면을 보여 준다. 작가는 이러한 인물들의 내면을 대화나 행동, 고사나 전설의 인용, 인물들이 창작한 시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가 분명히 ‘전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앞부분 줄거리] 주생은 기생 배도를 만나 사랑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주생은 승상의 딸인 선화를 만나 사랑하게 되고 승상 댁에 기거하며 승상의 아들인 국영을 가르친다.

다음 날 저녁이었다. 주생은 또 선화를 찾아갔다. 갑자기 담 밑 나무 사이에서 아련하게 신발 끄는 소리가 났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들켰나 싶어 달아나려 했다. 신을 끌던 사람이 푸른 매실을 던져 주생의 등을 맞혔다. 그는 피할 곳이 없어 몹시 당황했다. 수풀 속에 납작 엎드렸다. 그런데 신 끌던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랑, 놀라지 마세요. 앵앵*이가 여기 있어요.”

그제서야 주생은 선화가 한 짓인 줄 알았다. 일어서서 선화의 허리를 꼭 끌어안으며,

“왜 이렇게도 사람을 놀라게 하는 거요?”

하니, 선화는 웃으며 말했다.

“어찌 감히 낭군님을 놀라게 하겠어요. 낭군님 혼자 지레 겁을 먹었을 뿐이지요.”

주생은,

“향과 구슬을 도둑질하는데 어찌 겁이 나지 않겠소.”

하고는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주생은 창문 위에 걸린 시를 보았다. 마지막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름다운 선화가 무슨 근심이 있어 이런 시를 지었소?”

선화는 조용히 대답했다.

“여자의 몸은 수심과 함께 나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서로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서로 헤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러니 어찌 여자의 몸으로서 편안하게도 근심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낭군님은 절단지기*의 잘못을 범하였고 저는 행로지욕*의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불행히도 하루아침에 우리 정사의 자취가 발각된다면 친척들에게 용납되지 못할 것이요, 동리 사람들은 천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우리들이 손을 잡고 해로하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구름 속에 든 달과 같으며 숨은 꽃과도 같습니다. 설사 한때는 즐겁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테니 어찌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후, 눈물을 주룩 흘리며 원한 품은 태도를 보였다. 거의 자신을 억제하지 못했다. 주생은 눈물을 훔쳐 주며 위로해 말했다.

“대장부가 어찌 아녀자 하나를 얻을 수 없겠는가. 내 나중 중매의 절차를 밟아 예법대로 그대를 맞이할 것이니 너무 걱정을 마오.”

선화는 눈물을 거두며 치사했다.

“낭군님의 말씀대로만 될 것 같으면, 저의 아름다운 얼굴이 비록 집안을 화목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물을 캐어 정성껏 제사를 받드는 일만은 다하겠습니다.”

선화는 향합을 열었다. 조그만 화장용 거울을 꺼내어 둘로 깨뜨렸다. 한쪽은 자기가 갖고 다른 한쪽은 주생에게 주며,

“혼인날 밤을 기다렸다 다시 하나로 합하와요.”

했다. 또한 흰 김부채를 주면서 말했다.

“이 두 물건은 비록 하찮은 것이지만 제 마음의 간곡함을 나타내는 것이옵니다. 제 소원이오니 승란의 처*로 생각하시어 가을밤의 원한을 끼치지 마시옵고, 항아*가 그림자를 잃을지라도 꼭 밝은 달빛을 어여삐 여겨 아껴 주옵소서.”

이후로 그들은 밤이면 만났고 새벽으론 헤어졌다. 하룻밤도 거르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주생은 오랫동안 배도를 만나지 않았음을 생각했다. 그녀가 이상히 여길까 두려워 그녀의 집으로 가서 잤다. 밤사이 선화는 기다리다 못해 주생의 방에까지 갔다. 선화는 주생이 쓰던 단장 주머니를 풀어 보았다. 그녀는 배도가 지은 시 두어 폭을 발견했다. 그녀는 화가 뿌듯이 치밀었고 질투심이 솟아났다.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붓을 들어 까맣게 지워 버렸다. 그 밑에다 안아미사(眼兒眉詞) 일 절을 지어 푸른 비단에 써서 주머니 안에 집어넣고는 나가 버렸다.

(중략)

이튿날 주생이 돌아왔다. 선화는 조금도 질투하거나 원망스런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또 주머니를 끌러 본 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생 스스로 깨달아서 부끄러워하도록 하고자 함이어서 일체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승상 부인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배도를 불렀다. 부인은 주생의 학행(學行)을 칭찬했다. 국영을 가르치는 데 수고를 한다고 치사했다. 그리고는 손수 술을 따라 배도로 하여금 주생에게 잔을 권하게 했다. 주생은 이날 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배도는 혼자 앉았으니 따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주생의 단장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이를 끌러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지은 사(詞)가 먹으로 지워진 것을 보았다. 마음은 자못 언짢았고 괴이한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 밑에 ‘안아미사(眼兒眉詞)’를 보니 선화가 한 짓이 분명했다. 그녀는 몹시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 사를 소매 속에 감춘 다음 주머니를 전처럼 싸매 두었다 앉은 채 아침을 기다렸다.

- 권필, 「주생전」 -

* 앵앵: 장생과 앵앵의 사랑을 그린 「앵앵전」의 여주인공.

* 절단지기: 담을 넘어 처녀를 희롱함.

* 행로지욕: 여자가 부정하게 남자를 만나는 욕된 행동.

* 승란의 처(乘鸞之女):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상징하는 말로, 춘추시대 농욱과 소사의 사랑에 관한 고사를 인용함.

* 항아: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선녀.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재가 분명히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현관계는 동이줄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포인트1] 공간, 인물의 처지와 심경의 변화		
공간	주생의 처지	주생의 심경
배	떠돌이	고독
↓	↓	↓
고향	정착	사랑/행복
↓	↓	↓
배	떠돌이	고독

삼각관계로 인해
모든 사랑에
실패하고 다시
고독한 존재로
돌아감.

[포인트2] 액자식 구성

[외부 이야기]
‘나’와 주생의 만남

[내부 이야기]
주생의 사랑 이야기

- 작가 권필은 송도(개성)에 갔다가 역관에서 중국인인 주생을 만나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하던 중에 주생이 쓴 시에 담긴 연정을 알게 되고 주생으로부터 그의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됨.
- 작가 권필은 이 작품의 서술자인 ‘나’가 되어 주생에게 들은 사랑이야기를 전달함. : ‘나’는 주생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기이한 만남과 아름다운 기약에 슬픔을 금할 수 없어 붓을 잡고 이야기를 쓴다고 함.

[참고하기] EBS 'Q & A'

Q. 「주생전」이 그 이전의 전기 소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A. 이 작품은 전기 소설을 계승하였지만 비현실적, 환상적 요소가 약합니다. 세 명의 남녀 주인공 모두 현실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며, 죽음에 이른 배도가 사후에 환신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이전 전기 소설인 「이생규장전」의 경우 여주인공인 ‘최낭’이 사후에 환신으로 등장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한 세 명의 남녀 주인공이 삼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전기 소설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 지문] “비교하기, <애정과 비극>, 평가원 - ‘2017학년도 9월 검시습, 「이생규장전」 外 ”

(가)

우리나라 전기소설(傳奇小說)은 중국의 전기(傳奇)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되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소설의 갈래적 성격을 드러내었다. 전기소설 주인공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다.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둘째는 내면성이다.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 셋째는 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다.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 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다.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서, 「조신」, 「김현감호」, 「최치원」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설화와 전기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기이한 사건으로써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띤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은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이야기이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되었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이고, 이원적 공간 구도는 적강한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 소설로 계승되었다.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 교류의 매개로써의 시의 활용은 애정 소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전기소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

(나)

김현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귀는 인륜의 도리이지만 다른 유와 사기는 것은 대개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처녀가 말하기를, “낭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한 번 죽어 다섯 이로우이 갖춰지니 어떻게 그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신다면 낭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다음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가 없었다.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는 벼슬 2급을 주라고 하였다. 김현이 대궐로 들어가서, “소신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아뢰자, 임금이 우선 벼슬을 주어 그를 격려하였다. 김현이 단도를 지니고 숲 속으로 들어갔다. 범이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에 낭군과 함께 마음속 깊이 정을 맺던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의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처녀가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찢러 쓰러지니 곧 범이었다. 김현이 숲 속에서 나와, “지금 범을 쉽게 잡았다”라고 소리쳤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일러 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김현은 등용된 뒤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였다.

-작자 미상, 「김현감호」-

(다)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橫厄)을 만나 구려옴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는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으나,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옛일을 생각하면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 숙절없이 짝 잃은 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의 환신은 이승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옛날의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오.”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모든 가산은 어떻게 되었소?”라고 물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도 묻어 두었습니다.”

“그럼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 되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이튿날 부부는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제물이 있었다. 그들은 양가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고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았고, 피란갔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길흉사에도 가 보지 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밤에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오열하였다.

(중략)

“나도 부인과 함께 황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로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어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 주었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장례 지낸다.’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순효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A] 최낭은,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계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것입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이나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서 마침내 자취를 감추었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그 후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문제 1	(가)에서 설명한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전기소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선지	①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② 전기와 전기소설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인 서사 구조 속에서 전형성을 보여 주었다. ③ 전기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하였다. ④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다채로운 문체를 활용하면서도 서사적 독자성을 지향했다. ⑤ 전기소설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
정답 해설	⑤ (가)의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하였으며,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p>오답 풀이</p>	<p>①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인데,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고 언급하고 있다.</p> <p>② (가)의 1문단에서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전기소설은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p> <p>③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p> <p>④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p>
<p>문제 2</p>	<p>(가)를 바탕으로 (나), (다)의 인물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p> <p>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법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김현에게 부탁한다는 점에서 (나)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③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폐쇄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p> <p>④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 가려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p> <p>⑤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춘다는 점에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
<p>정답 해설</p>	<p>⑤ (다)에서 이생은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최낭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며, 자신이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그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의 3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에서 최낭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비극적 결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가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없다.</p>
<p>오답 풀이</p>	<p>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고, 범을 잡아 벼슬에 등용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의 김 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소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p> <p>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다섯 가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가)의 3문단서,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김 현과 범의 갈등 해결은 불교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p>③ (다)의 이생은 최낭이 환신해 돌아오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면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이생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p>

	<p>④ 횡액을 당해 죽은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 원통해 하다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남은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며,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공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의 최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외로움'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p>
<p>문제 3</p>	<p>(나)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② (나)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A]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 ③ (나)의 여주인공은 남주인공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A]의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④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 ⑤ (나)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A]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p>
<p>정답 해설</p>	<p>①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여주인공인 처녀(범)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처녀와 헤어지고 있다. 그리고 [A]에서 남주인공인 이생은 여주인공인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p>
<p>오답 풀이</p>	<p>②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자신이 죽으면 다섯 이로우미 갖춰진다고 하면서 김현에게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은 자신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고 말하면서 남주인공인 이생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남주인공인 김현에게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처녀(범)는 자신의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김현에게 알려 주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은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달라며 이생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나, 이를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죽인 공로로 벼슬에 올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함으로써 범이 제 몸을 죽여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아내인 최낭이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준 후에 병을 얻어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⑤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올랐으므로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p>

<p>문제 4</p>	<p>㉠을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김현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 ② 매우 '사나운 범'이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 실현을 가로막는 현실의 경이로움을 보여준다. ③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은 김현과 범 사이의 긴장감이 해소됨을 보여준다. ④ 임금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는 장면은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를 드러낸다. ⑤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부처가 남녀의 기이한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낸다.</p>
<p>정답 해설</p>	<p>① (가)의 3문단에서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처녀(범)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범의 희생으로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p>
<p>오답 풀이</p>	<p>② (나)에서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이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김현은 처녀(범)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처녀(범)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에서 김현은 임금에게서 벼슬을 얻고 있으므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임금은 범을 잡기 위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에 따르면, 이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성취되는 서사일 뿐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로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범이 희생을 감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범의 희생에 대한 김현과 처녀(범)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장면이 부처가 김현과 처녀(범)의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는 서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p>
<p>문제 5</p>	<p>(다)에 나타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최낭이 '횡액을 만나 구령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군. ② 최낭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이별한 자신을 '짙 잃은 새'로 표현하는 것에서,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을 알 수 있군. ③ '굳은 맹세'를 지키자는 최낭의 말에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 있군. ④ 최낭이 이생에게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알 수 있군. ⑤ 최낭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것에서,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여주인공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군.</p>

<p>정답 해설</p>	<p>④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과 산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던 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하면 이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황천으로 가서 살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이생을 만류하고 나서 점점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세 번 가약을 맺었던 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는 구절이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p>
<p>오답 풀이</p>	<p>① 이생과 결혼한 최낭은 행복하게 살다가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횡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구렁'은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므로 이생과 최낭의 사랑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p> <p>② 최낭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헤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짜 잃은 새'에 빗대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잃은 최낭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p> <p>③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온 최낭이 이생에게 옛날의 '굳은 맹세'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이생은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두 남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p> <p>⑤ 최낭은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 될 뿐 아니라 죄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이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최낭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p>
<p>문제 6</p>	<p>(다)에 구현된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p>
<p>문제 선지</p>	<p>①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p> <p>② 능동적 여인상은 최낭의 '환신'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p> <p>③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리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p> <p>④ 이원적 공간 구도는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따라 '황천'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p> <p>⑤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는 것은 이생과 최낭이 '시를 지어 주고받'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p>
<p>정답 해설</p>	<p>① (다)에서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사건은 이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장면이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p>
<p>오답 풀이</p>	<p>② (다)에서 횡액을 만나 죽은 최낭은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낭은 능동적인 여인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p>③ (다)에서 최낭은 이미 죽었으나 '환신'으로 이생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정'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산 자(이생)와 죽은 자(최낭)가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은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p> <p>④ (다)에서 최낭은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나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최낭은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이원적 공간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 <p>⑤ (다)에서 이생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p>

현대산문 [42~45번 지문] [김훈, '칼의 노래']

“의금부 도사에 따르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조정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EBS 수능특강 연계 #수능특강(p264) #사용설명서(p266)

[작품 '한눈'에 보기] “이해를 조금 돕는 정도로 가볍게.”

[전체 줄거리]				
<p>이순신은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명으로 모함을 받아 문초를 받고 백의종군하다가 조선군이 전멸할 위기에 놓이자 다시 삼도 수군통제사로 임명된다. 이순신은 열악한 상황에서 지략을 발휘하여 12척의 배를 가지고 명랑 해전의 승리를 거두지만 아들 면의 전사 소식을 듣는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철수를 준비하면서 조선 왕실과 백성에게도 그 여파가 미쳐 피해를 입게 된다. 명나라 장군이 왜장과 거래하여 퇴로를 열어 주기로 하자 이순신은 이에 반대하여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량 해역에서 철수하려는 적들과 전투를 벌이던 중, 적의 총탄을 맞고 죽게 된다. 이순신은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고 전투 중에 죽게 된 것에 안도하며 죽음을 맞이한다.</p>				
주제	이순신 장군의 삶의 모습과 인간적 고뇌			
[작품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p>이순신이 왕명을 거역했다고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함.</p>	<p>삼도 수군이 전멸하자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피폐한 조선군을 이끌게 됨.</p> <p>명랑 해역에서 적군을 격파하지만 왜적의 보복전쟁으로 아들 면의 전사함.</p>	<p>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일본군은 철수 준비를 함. 그 과정에서 피해가 속출함.</p>	<p>· 명나라 장수가 왜적의 퇴로를 열어주는 것을 전제로 왜장과 거래함. · 이순신은 이를 막기 위해 노량 해전에서 전투를 벌임.</p> <p>이순신이 싸움을 이끌다가 총탄에 맞음.</p>	<p>이순신은 전투를 지속할 것을 독려하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 안도하고 전사함.</p>

[<보기>를 통한 작품 이해]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 내 주된 특징을 파악하자.”

‘한수 모의고사’ <보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밖으로는 남해안 일대를 점령한 왜군에 맞서 싸워야 했고, 안으로는 전세(戰勢)를 고려하지 않고 적에 대한 원한과 분노로 전투를 종용하는 임금, 시기와 모략을 일삼는 신하들, 공적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된 부하 장수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역사적 사실을 변용하여 절망적 상황에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 나간 이순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EBS 연계 학습 ‘지문’ -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다.] “EBS 연계를 분명히 ‘전투’는 아니다. 그러나 시공간에서는 동양들이 될 수 있다.”

정유년 여름에,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 수군 연합 함대는 거제도 북쪽 칠천량 앞바다에서 전멸되었다. 그해 초봄, 나는 한산 통제영에서 체포되었다. 가덕 방면 전투는 험거웠다. 적의 전투 의지가 내 몸에 전해지지 않았다. 전투라기보다는 부지런히 잡초를 뽑는 농사일 같은 느낌이었다. 가덕 해역으로부터 함대를 철수시켜 한산 통제영 모항으로 돌아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의금부 도사는 선착장에서 나를 묶었다. 포승은 뼈를 파고들듯이 역세었다. 의금부 도사에 따르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죄목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가는 함거에 오르기 전에 나는 내 후임자인 원균에게 함대, 병력, 군량, 총포, 화약, 창검, 포로, 그리고 행정 사항을 인계했다. 원균은 나를 실은 함거가 어서 떠나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실물의 수량과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개전 이듬해인 계사년 여름부터 나는 한산 통제영에 주둔해 왔다. 내가 원균에게 인계한 병력과 장비는 한산 통제영에서 3년 반 동안 확보한 군비의 전체였으며, 조선 수군 총군비의 팔 할이 넘는 것이었다. 그 팔 할이 칠천량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팔 할이 불탄 널빤지와 목 잘리고 코 잘린 시체로 물 위에 흩어졌다. 하룻밤 하룻낮의 전투였다.

나중에 들으니, 적선 천여 척이 방사 대형으로 날개를 퍼면서 달려들었고, 한산 통제영에서 거제도 앞바다까지 하루 종일 배를 저어 온 피곤한 군사들을 원균은 적의 방사형 대열 중앙부에 일자진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안다. 원균은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도 말리지 못할 무서운 적의를 지닌 사내였다. 그 사내는 모든 전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전투이기를 바랐다. 그는 전투의 결과에 얻을 것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때때로 수많은 적의 머리를 주어서 그를 달랬다. 그의 활화산 같은 적의와 분노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 적의 방사진 앞에 장졸과 함대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갑옷마저 잃어버린 원균은 거제도의 산속으로 달아났다. 그는 칼 한 자루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그 뚱뚱한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물까지 쫓아온 적의 칼을 받았다. 전라 우수사 이억기도 죽었고 충청 수사 최호도 배가 부서질 때 바다에서 죽었다.

(중략)

도원수 권률은 군관과 나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살피고 기름졌다. 갈기에서 무지갯빛이 부서졌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토방 뒷마루에 걸터앉았다. 나졸들은 마당에서 창검과 기치를 정렬했다. 나는 마루로 나와서 그에게 절했다.

—이순신, 자네를 자네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그는 백의종군하는 나의 지위를 명석하게도 나에게 인식시켰다. 환갑의 나이에도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백의의 몸이오니.....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인 병신년 초겨울에 나는 한산 통제영에서 그를 대면한 적이 있었

다. 그때 그는 통제영까지 나를 찾아왔었다. 조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어 있는데, 함대를 이끌고 부산 해역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해서 가토의 머리를 조정으로 보내라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었다. 그는 이 작전이 조정의 전략이며 도원수의 지시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갔고 나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반간(反間)*들로부터 입수했다는 조정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부산 해역의 연안 포구와 섬들에 적들은 거대한 군비를 쌓아 놓고 있었다. 그 섬들 사이로 함대를 이동시키자면 후방과 측방이 모두 위태로웠다. 겨울 바다는 물결이 높았다. 그 물결 높은 바다 위에서 며칠이고 진을 펼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적을 기다린다는 것은 자살이나 다름없었다.

조정은 작전 전체의 승패보다도 가토의 머리를 간절하게 원했다. 가토는 임진년 출병의 제1진이었다. 가토의 부대는 한나절 만에 부산성을 깨뜨리고, 꽃놀이 가는 봄나들이 차림으로 가마 대열을 꾸며 북으로 올라갔다. 붙잡힌 조선 백성들이 그 가마를 메었다. 임금은 가토의 부대에 쫓겨 의주까지 달아났었다. 임금은 가토의 머리에 걸린 정치적 상징성을 목말라 했다. 임금은 진실로 종묘사직 제단 위에 가토의 머리를 바치고 술 한 잔을 따르고 싶었을 것이다.

나는 정치적 상징성과 나의 군사를 바꿀 수는 없었다. 내가 가진 한 움큼이 조선의 전부였다. 나는 임금의 장난감을 바칠 수 없는 나 자신의 무력을 한탄했다. 나는 임금을 이해할 수 있었으나, 함대를 움직이지는 않았다. 나는 즉각 기소되었다. 권륜이 나를 기소했고 비변사 문인 관료들은 나를 집요하게 탄핵했다. 서울 의금부에서 문초를 받는 동안 나는 나를 기소한 자와 탄핵한 자들이 누구였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나는 정치에 아둔했으나 나의 아둔함이 부끄럽지는 않았다.

그 권륜이 이 궁벽한 산골까지 또다시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권륜은, 바로 이틀 전에 칠천량 앞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되었다는 소식을, 혼잣말을 하듯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 김훈, 「칼의 노래」 -

*반간: 적의 간첩.

[EBS 연계 학습 '작품'] "EBS 연계가 분명히 '전쟁'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장에서는 동아들이 될 수 있다."

EBS 연계 POINT

해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의 일상과 그가 느꼈을 인간적인 고뇌와 내면 심리를 재구성하여 형상화한 소설이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전쟁이라는 상황과 조정과의 관계 등에서 이순신이 인간으로 느꼈을 절망감과 허무감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특히 짧고 간결한 문체로 전쟁 장면을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모순 어법을 자주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전투 준비 과정과 전투 전후의 심정, 혈육의 죽음과 여인과의 사랑, 종묘사직에 대한 사유 등의 내면을 섬세하게 제시하여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와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포인트1] 표현상의 특징

-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통해 인물이 겪었을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간결한 문체를 통해 전쟁의 긴박한 상황을 속도감 있게 드러냄.
- 감각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간접적으로 드러냄.
- 서로 대립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을 대등하게 병치한 모순 어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포인트2] 인물에 대한 이해

영웅 이순신	인간 이순신
나라를 걱정하고 충성을 다하는 책임감을 지님.	전투에 참여한 이들의 고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이해를 드러냄.
수군통제사로서 전투와 관련하여 치밀한 태도, 전략, 상황 파악 능력을 지님.	가족, 연인, 정치적 권력 등에 대한 고뇌와 감정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냄.

[포인트3] 이 작품에서 '전쟁'의 의미

이순신이 겪는 전쟁	인식의 차이	임금이 겪는 전쟁
실제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임.	↔	아군에게서 상황을 보고 받는 추상적인 면이 있음.
죽음과 직결된 생존의 위기와 연관됨.		전투의 패배와 관련지어 느끼는 사직(조정)의 위기와 관련됨.

EBS 사용설명서, 「더 알아보기」

• 「칼의 노래」에서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슬픔을 드러내는 부분.

이 작품에서는 전쟁을 겪는 인간 이순신의 내면이 상세하게 재구성되어 있다. 아들 '면'의 죽음과 관련된 부분을 통해 작가가 그리고자 한 이순신의 인간적 면모와 전쟁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면의 부고를 받던 날, 나는 군무를 폐하고 하루 종일 혼자 앉아 있었다. (중략) 나를 닮아서, 사물을 아래에서 위로 빨아 당기듯이 훑어 내는 면의 눈동자를 생각했고, 또 내가 닮은 내 죽은 어머니의 이마와 눈썹과 시선을 생각했다. 젊은 날, 국경에서 돌아와 면을 처음 안았을 때, 그 따스한 젖비린내 속에서 몽클거리며 솟아오르던 슬픔을 생각했다. (중략) 그리고 송장으로 뒤덮인 이 쓰레기의 바다위에서 그 씨내림의 운명을 힘들어하는 내 슬픔의 하찮음이 나는 진실로 슬펐다.

몸 깊은 곳에서 치솟는 울음을 이를 악물어 참았다. 밀려 내려갔던 울음은 다시 잇새로 새어 나오려 했다.

[참고하기] EBS 'Q & A'

Q. '모순 어법'이 무엇이고, 작품 속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나요?

A. '모순 어법'은 서로 대립되거나, 한 문장 내에서 공존할 수 없는 개념이 대등하게 나열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작가는 서술 대상의 한 면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는 특히 역사 소설에서 과거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모순 어법을 자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나는 통제할 수군이 없는 수군통제사였다.'
- '임금은 장수의 용맹이 필요했고 장수의 용맹이 무서웠다.'
- '삶은 집중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분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Q.	「난중일기」와 「칼의 노래」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A.	<p>「난중일기」는 이순신이 전쟁을 겪으며 전쟁의 초기부터 죽기 전까지 직접 겪은 전쟁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글입니다. 주로 날짜와 날씨, 전쟁의 상황과 그에 대해 보고 느낀 점을 간결한 문장으로 기록한 것으로, 이순신이 실제 사건의 참여자이면서 기록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일종의 전쟁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의 노래」는 정유재란 당시의 이순신을 1인칭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난중일기」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임진왜란에 대한 총체적 인식이나 백성의 고통을 상세히 드러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데, 주로 이순신의 입장에서 이순신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 권력의 허망함 등을 드러내어 탈영웅화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이순신의 모습을 부각했다는 점이 특징이었다.</p>
EBS 핵심 문제	
<보기>	<p>「칼의 노래」에서 전쟁은 바다와 남도에서 이순신이 몸으로 겪는 현실적 전쟁과, 의주 혹은 서울에 있는 임금이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구체성 없이 막연하게 상상을 통해 느낌으로 겪는 추상적 담론에 의한 전쟁으로 그려진다. 이순신이 겪는 현실적 전쟁은 부상과 굶주림의 고통, 죽음의 공포 등과 관련된 생존의 위협, 즉 실존적 위기이지만 임금의 추상적 담론에 의한 전쟁은 어명대로수행하지 못했거나 전투에서의 패배와 관련된 사직의 위기, 곧 정치적 권력의 위기이다. 이 작품은 이처럼 이순신이 겪었을 전쟁에 대한 현실 감각, 실존 감각을 형상화함으로써 왕권 수호와 대의명분 실현이라는 관념적 측면보다는 생존과 일상이라는 의미망 속에서 전쟁과 충(忠)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p>
발문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 선지	<p>① '나'가 '혼절과 혼절 사이'를 경험하며 임금이 '나를 죽여서 사직을 보존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조정에 있는 임금이 어명의 수행 여부나 전투의 패배 등과 관련된 보고를 통해 '나'로 인하여 정치적 권력의 위기를 느꼈을 것이라는 점과 관련지어 추측해 볼 수 있겠군.</p> <p>② 임금이 '나'를 의금부로 잡아들였다가 '살려 준' 이유는, 남도에서 발생한 실제 전쟁으로 위기를 느낀 임금이 현실적 전쟁의 승리를 통해 사직을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p> <p>③ '나'가 전투 현장에서 '격군들은 기진맥진했'고 '사흘 밤을 재우지 못했다.'라고 하며 전쟁에 참여한 이들이 겪은 신체적 고통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나'가 인간의 생존의 위협과 관련지어 전쟁을 바라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군.</p> <p>④ '나'가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라며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을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어명에 따라 신하로서의 명분을 완수하기 위해 실존적 위기와 정치적 권력의 위기를 모두 감수해 낸 자신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p> <p>⑤ '모든 한 척이 전방위의 사선에 노출되어 있었'고 '와류 속에서 적병들의 시체가 소용돌이쳤다.'와 같이 아군과 적군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전투 상황을 제시한 것은, 양측이 모두 고통을 겪는 전투 현장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전쟁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p>
정답 해설	<p>④ '나'는 임금이 중시하는 사직의 위기와는 달리 생존, 실존적 위기로 전쟁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내 자연사에 안도했다.'라고한 것은 무인으로서 현실적 전쟁이라는 실존적 위기를 감수하면서 전쟁터에서 책임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다. 어명에 따라 신하로서의 명분을 완수하는 것은 임금이 중시하는 추상적 담론에 의한 전쟁과 관련되지만, 이순신이 이러한 정치적 권력의 위기까지 감수해 낸 자신에 대해 안도감을 느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p>

#Chapter 2. “영역 별 주요 문항/지문” 집중 분석 - ③ 독서

[참고] 아래 분석은 강사 본인이 직접 시험을 치르고 실제 읽었던 느낌을 기억하여 그대로 쓴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석의 내용은 실전에서 이 정도 읽어주면 된다는 ‘선’을 여러분들의 ‘선’과 맞춰보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그 와중에 이 정보가 왜 중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딱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는 읽었어야 하는 최소한의 ‘선’과 굳이 이해를 하자면 이렇다는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사회[16~19번 지문][신분범의 행위자와 가담자에 대한 법률]

설명을 읽기 전에 먼저 한 번 정독할 것을 추천합니다.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운전자가 아님에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을까?

어떤 범죄는 행위자가 일정한 ‘신분’이어야만 성립한다. 무면허운전죄는 행위자가 운전자라는 신분이어야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어야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은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배임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어야 성립한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신분을 구성적 신분이라고 한다.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신분도 있다. 존속폭행죄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이 된다. 즉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신분이 아니어도 폭행죄는 성립하지만, 직계비속의 신분이라면 형벌이 가중된다. 이러한 신분을 가중적 신분이라고 한다. 한편, 구성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 가중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신분범을 함께 실행했거나 그 실행을 도운 자, 즉 신분범에 가담한 자가 해당 신분범에서 요하는 신분이 아닐 때, 그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를 해당 범죄가 요하는 구성적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신분을 이유로 더 큰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형법 제33조의 본문은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함께 실행했거나 그 실행을 도운 자, 혹은 그 실행을 지시한 자에게 각각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에 대한 법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함께 실행한 범죄이고, 종범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는 범죄이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범죄이다. 그런데 형법 제33조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별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따로 두고 있다.

법학계에서는 형법 제33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위의 단서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 등의 처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하거나 그 실행을 지시한 비신분자의 죄책에 대해서는 제33조의 본문을, 처벌에 대해서는 제33조의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것을 A의 친구 B가 도운 경우, 비신분자인 B의 죄책은 존속폭행죄인데 처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종범에 대한 처벌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취해, 범죄의 성립에서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간에 연대가 이어진다고 보아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자와 동일한 죄책이 부여되지만 책임은 개별화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규정의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하거나 그 실행을 지시한 비신분자의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 모두 제33조의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B에게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죄책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실전 읽기] 무엇을 '이해'하고,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도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는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다. 그런데 조수석 탑승자가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운전자가 아님에도 무면허운전죄로 처벌을 받을까?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줘야 합니다.
- ② 무면허 운전자 ⇨ 무면허운전죄로 처벌 ⇨ 그럼 조수석 탑승자는??
- ③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은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를 별개로 놓고 무면허운전죄의 적용 범위를 따지겠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 질문에 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답은 뒤에서 제시되겠지요. 일단 넘어갑시다.

어떤 범죄는 행위자가 일정한 '신분'이어야만 성립한다. 무면허운전죄는 행위자가 운전자라는 신분이어야 성립하고 공문서위조죄는 행위자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어야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처리하여 줄 것을 위임받은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데, 배임죄는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이어야 성립한다. 이처럼 범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신분을 **구성적 신분(C)**이라고 한다. 범죄의 성립이 아니라 처벌의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신분도 있다. 존속폭행죄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이 된다. 즉 폭행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계비속*의 신분이 아니어도 폭행죄는 성립하지만, 직계비속의 신분이라면 형벌이 가중된다. 이러한 신분을 **가중적 신분(C)**이라고 한다. 한편, **구성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C)**, **가중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C)**이라고 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챕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5번째 줄을 기점으로 문단 내용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만 잘 해주면, 이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② 어떤 범죄는 성립의 조건이 행위자의 '신분'이 된다고 하네요. 이 말인즉, 특정 '신분'이 아닌 행위자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뒤에 나온 사례들을 같이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 ③ 첫 번째 문장에서 말했던 '어떤 범죄'의 종류가 소개되었습니다. 무면허운전죄 / 공문서위조죄 / 배임죄가 제시되었는데, 배임죄에 대한 설명이 좀 기네요. 나중에 <보기> 혹은 추론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겠다 정도만 센스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④ 위에서 얘기한 3개의 범죄는 특정한 신분이 성립 조건이 되고, 이때 조건이 되는 '운전자', '공무원' 같은 신분을 '구성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 ⑤ '구성적 신분'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조건이 되는) 신분이라면, '처벌의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신분도 있습니다. '존속폭행죄'의 경우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벌이 가중된다고 합니다.
- ⑥ 이때 '직계비속'이라는 신분, 즉 처벌을 가중시키는 신분을 '가중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 ⑦ 마지막 문장까지 잘 정리해줍니다. '구성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하고 '가중적 신분'을 요하는 범죄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죄'는 '진정신분범'에 '존속폭행죄'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겠네요.

신분범을 함께 실행했거나 그 실행을 도운 자, 즉 **신분범에** 가담한 자가 해당 신분범에서 요하는 신분이 아닐 때, 그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를 해당 범죄가

요하는 구성적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에 가담하였음에도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를 신분자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면, 신분을 이유로 더 큰 책임을 부과하기로 한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된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화제가 살짝 바뀝니다. 일단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을 합쳐서 신분범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게 먼저 보이네요. 신분범에서 '행위자'는 그냥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가담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 ② 진정신분범의 사례부터 한번 생각해볼까요? 첫 번째 질문의 내용이 떠올랐다면, 아주 잘 읽은 것입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지요. 운전자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는데,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은 운전자도 아니므로 '구성적 신분'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조수석에 탄 사람, 즉 가담자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그것도 이상합니다.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범죄 행위를 도운 거나 마찬가지로요.
- ③ 부진정신분범의 사례도 한 번 생각해봅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폭행했습니다. 아들은 '존속폭행죄'의 가중적 신분을 만족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겠지요. 그런데 그 폭행을 도운 친구가 한 명 있었다고 해봅시다. 이 친구한테도 아들처럼 가중 처벌을 받도록 하면, '부진정신분범'을 만드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 ④ 행위자와 가담자를 똑같이 대할 수도 없고, 다르게 대할 수도 없는 일종의 딜레마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법 제33조의 본문은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를 함께 실행했거나 그 실행을 도운 자, 혹은 그 실행을 지시한 자에게 각각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 **종범**, **교사범**에 대한 법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함께 실행한 범죄(C)이고, **종범**은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돕는 범죄(C)이다. **교사범**은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범죄(C)이다. 그런데 **형법 제33조**는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따로 두고 있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이에 대해 '형법 제33조의 본문'에서는 신분범의 가담자에게 가담 유형에 따라 '공동정범 / 종범 / 교사범'에 대한 법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각각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데, 차이점 잡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 (1) 공동정범 : 같이 한 사람 / (2) 종범 : 도운 사람 / (3) 교사범 : 시킨 사람
- ② 앞의 내용과 별개로 마지막 문장을 제대로 읽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문단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 ③ '형의 경중'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범주를 한정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3조의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만 적용됩니다. 부진정신분범의 가담자는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단서에서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학계에서는 형법 제33조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먼저 위의 단서가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한 비신분자 등의 처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하거나 그 실행을 지시한 비신분자의 죄책에 대해서는 제33조의 본문을, 처벌에 대해서는 제33조의 단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폭행하는 것을 A의 친구 B가 도운 경우, 비신분자인 B의 죄책은 존속폭행죄인데 처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종범에 대한 처벌 법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현재 법원은 이러한 견해를 취해, 범죄의 성립에서는 신분자와 비신분자 간에 연대가 이어진다고 보아 비신분자에게도 신분자와 동일한 죄책이 부여되지만 책임은 개별화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당 규정의 본문은 진정신분범,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아 부진정신분범에 가담하거나 그 실행을 지시한 비신분자의 죄책과 형벌에 대해서 모두 제33조의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즉, 위의 사례에서 B에게는 일반적인 폭행죄의 죄책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전 독해] - 가볍게 읽어보고 챙길 내용만 챙기세요.

- ① 생각의 범위를 좁혀놓고 들어갑니다. 형법 제33조의 '단서'에 대한 두 가지 견해입니다. 문단이 길어서 정보량이 많아 보이는 하지만, 사례를 제외하고 보면 정리해야 할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개의 견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죄책’과 ‘처벌’을 별개로 뒤야 합니다.

② [견해 1] 죄책 ⇨ 본문에 따라 / 처벌 ⇨ 단서에 따라

③ 우리나라의 법원은 [견해 1]을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말 바꾸기도 체크해줍니다. 가담자의 처벌을 ‘단서’에 따라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처벌을 ‘개별화’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④ [견해 2] 죄책 ⇨ 단서에 따라 / 처벌 ⇨ 단서에 따라

⑤ ‘처벌’에 대한 견해는 둘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통점이 되고, ‘죄책’에 대한 견해는 차이점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니, 같이 읽으면서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반드시 성취한다.’

[37~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이러스는 동물, 식물, 세균 같은 생명체를 숙주로 삼아 증식하는 감염성 병원체로, (증식 과정에서 숙주 세포를 손상하거나 파괴하면서 치명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음식이나 체액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어 공중 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진단을 통해 감염자를 격리, 치료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진단에는 (효소 면역법이나 핵산 증폭법 등이 사용되었으나, 이들 방법은 정확도가 매우 높은 대신 고가의 장비가 구비된 실험실에서만 쓸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최근에는 정확하면서도 (훨씬 신속하고 값싸게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검출용 바이오센서가 개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바이오센서는 검출 대상인 표적 물질과만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생체 물질인 바이오 수용체, 표적 물질과 바이오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이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검출 신호로 변환하는 트랜스듀서로 이루어진다. 바이오센서는 트랜스듀서의 신호 변환 방식에 따라 광학식, 전기식, 기계식으로 나뉘는데, 최근 들어 바이러스 검출용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① 전계효과 트랜지스터(FET) 바이오센서는 전기식에 해당한다. FET 바이오센서는 FET를 일종의 트랜스듀서로 활용하는 바이오센서이며, 신속한 진단과 소형화, 저비용 대량 생산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FET는 (소스, 드레인, 게이트)라는 3개의 전극으로 구성된 반도체 소자로, (소자의 내부 전기장(전계)이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 즉, 소자에 외부의 전원이 공급되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일정한 양의 전류가 흐르는 동안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위치한 게이트에 인가된 전압이 변화하면 이 전류의 양이 바뀌는 것이다.) FET 바이오센서는 고분자 물질에 바이오 수용체를 부착한 것을 일종의 유사 게이트로 활용하여 시료에 표적 물질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액상의 시료에 표적 물질인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있으면) 이 유전 물질이 바이오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유사 게이트의 전압이 변화하고 이 변화에 의해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도 변한다. FET 바이오센서는 이 전류의 변화를 감지하여 감염 여부를 판정한다.)

FET 바이오센서의 성능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판단한다. (민감도는 센서가 표적 물질의 (농도 차이)에 반응하는 정도로서, 시료에 포함된 표적 물질의 농도가 1단위 달라질 때마다 전류가 크게 변할수록 민감도가 높다고 말한다.) 특이도는 표적 물질만 검출할 수 있는 정도로서, 시료에 표적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전류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으면 (특이도가 낮다고 말한다. 민감도와 특이도가 둘 다 높은 센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최근에는 기존의 반도체 소재 대신 (나노 구조체를 사용하여 이러한 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반도체 소재로는 유사 게이트 부분을 박막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박막 형태는 크기를 줄일수록 표적 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작아져 (민감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면 나노 구조체는 크기를 줄여도 표면적이 줄지 않는 다양한 형태로 유사 게이트 부분을 만들 수 있어 (민감도를 높일 수 있

37-2

37-1

39-1

37-1

39-2

37-3

다. 또한 반도체 소자는 작게 만들수록 제어 불능의 전기 신호인 (잡음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잡음은 표적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없어도 전류를 변화시켜 마치 표적 물질이 검출된 것 같은 효과를 낸다.) (나노 구조체는 이러한 잡음 발생 빈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재이므로 (센서의 특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표적 물질의 농도 차이와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 사이에 대략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하면 (선형성 조건이 충족된다고 한다. 선형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표적 물질의 농도에 대한 계측이 불가능하다.)

37-3, 39-2

37.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 ① FET 바이오센서는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 → 바이오 수용체, FET (소스, 드레인, 게이트)
- ②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 → 지문 확인
- ③ FET 바이오센서의 특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 잡음의 발생
- ④ 반도체 소자를 작게 만들수록 잡음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X → 그 이유는 언급 X.
- ⑤ FET 바이오센서에서 표적 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의 표면적은 센서의 민감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 → 지문 확인

*참고!

38.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 ① 바이러스는 동물이나 세균 같은 생명체를 통해서만 전파될 수 있다. X → 생명체는 주로 삼고, 음식이나 체액 등을 통해 전파 가능
- ②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에서 숙주로 삼은 생명체에 치명적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 → 지문 확인
- ③ 핵산 증폭법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다. ○ → 지문 확인
- ④ 바이러스 검출용 FET 바이오센서는 효소 면역법에 비해 더 신속하게 바이러스 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지문 확인
- ⑤ 바이러스 검출용 바이오센서는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과만 상호작용하는 생체 물질을 바이오 수용체로 쓸 수 있다. ○

↳ 표적 물질 =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 옳은 설명.

3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 ① 전기식 신호 변환 방식을 채택한 바이오센서에 해당한다. ○ → 지문 확인
- ② 나노 구조체를 소재로 활용하면 잡음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다. ○ → 지문 확인
- ③ 기존의 반도체 소재로 유사 게이트 부분을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민감도가 크게 낮아진다. ○ → 박막 형태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 ④ 바이오 수용체와 표적 물질이 상호작용하면 FET에 전원이 공급된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X → 유사 게이트의 전압 변화 →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 변화 (전원이 공급된 것과 X)
- ⑤ 소자의 내부 전기장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리를 활용한다. ○

↳ 지문 확인

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⑤ **성품이 설명하려는 것**
정확히 파악 & 지문과 연결

<보 기>
잡은 서로 다른 소재로 유사 게이트 부분을 만든 FET 바이오센서 A와 B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바이어스 V의 유전 물질 농도를 1단위씩 높여 가며 드레인으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표로 정리하였다. (단, 다른 실험 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잡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V의 유전 물질 농도	0	1	2	3
A	전류의 양	0.9	4.0	7.1	10.1
B	전류의 양	0.9	2.0	3.1	4.1

- ① A는 B와 달리 선형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군. X
② B는 A에 비해 민감도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 주는군. X → A가 B보다 민감도가 더 높다.
③ 잡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B가 A에 비해 표적 물질의 농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겠군. X → 농도의 정밀 계측: 민감도 ↑, 특이도 ↓. 잡음 발생 제외하면 민감도만 높으면 되는데, A가 B보다 민감도가 높으므로 X.
④ 잡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전류의 변화량이 동일하다면, A가 B에 비해 표적 물질의 농도의 계측값이 더 크게 왜곡되었군. X
⑤ 잡음 발생이 없고 유전 물질의 농도가 0이 아니면서 동일하다면, B에서보다 A에서 유전 물질과 바이오 수용체의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겠군. O
→ A 민감도 > B 민감도 (농도 변화에 따른 전류의 변화량). 개략도 생각해서 전류의 변화량, 전류의 변화량. 같은 값 A의 농도 변화는 B보다 작게 측정될 것. → A보다 더 왜곡될 것이다.
↳ 바이어스 농도가 표적 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면적 ↓ = 민감도 ↓ 이므로 민감도 ↑ = 유전물질 & 바이오 수용체의 상호작용 ↑ 라고 유추 가능. 그렇다면 ⑤의 논리는 더 부합될 것이고 A보다 더 왜곡될 것이다.

41.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③

- ① 철수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동생보다 떨어진다.
- ②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에 입맛이 푹 떨어졌다.
- ③ 비 올 땐 차량 운행 속도가 20%가량 떨어진다.
- ④ 가야 할 방향을 채 잡기도 전에 해가 떨어졌다.
- ⑤ 매출보다는 네 손에 떨어지는 이익에 신경 써라.

→ '특이도', '속도'는 둘 다 측정할 수 있는 수치이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정유년 여름에,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 수군 연합 함대는 거제도 북쪽 칠천량 앞바다에서 전멸되었다. 그해 초봄, ㉡나는 한산 통제영에서 체포되었다. 가덕 방면 전투는 험거웠다. 적의 전투 의지가 내 몸에 전해지지 않았다. 전투라기보다는 부지런히 잡초를 뽑는 농사일 같은 느낌이었다. 가덕 해역으로부터 함대를 철수시켜 한산 통제영 모항으로 돌아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의금부 도사는 선착장에서 나를 묶었다. ㉢포승은 뼈를 파고들듯이 역세였다. 의금부 도사에 따르면,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의 죄목은 조정을 능멸했고, 임금을 기만했으며, 조정

의 기동 출격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서울로 가는 함거에 오르기 전에 나는 내 후임자인 원균에게 함대, 병력, 군량, 총포, 화약, 창검, 포로, 그리고 행정 사항을 인계했다. 원균은 나를 실은 함거가 어서 떠나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는 실물의 수량과 보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서에 도장을 찍었다.

개전 이듬해인 계사년 여름부터 나는 한산 통제영에 주둔해 왔다. 내가 원균에게 인계한 병력과 장비는 한산 통제영에서 3년 반 동안 확보한 군비의 전체였으며, 조선 수군 총군비의 팔할이 넘는 것이었다. 그 팔 할이 칠천량 앞바다에 수장되었다. 그 팔 할이 불탄 널빤지와 목 잘리고 코 잘린 시체로 물 위에 흩어졌다. ㉣하룻밤 하룻낮의 전투였다.

나중에 들으니, 적선 천여 척이 방사 대형으로 날개를 펴면서 달려들었고, 한산 통제영에서 거제도 앞바다까지 하루 종일 배를 저어 온 피곤한 군사들을 원균은 적의 방사형 대열 중앙부에 일자진으로 집중시켰다는 것이다. 나는 안다. 원균은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고 아무도 말리지 못할 무서운 적의를 지닌 사내였다. 그 사내는 모든 전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전투 이기를 바랐다. 그는 전투의 결과에 얻을 것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때때로 수많은 적의 머리를 주어서 그를 달랬다. 그의 활화산 같은 적의와 분노가 날개를 펴고 달려드는 적의 방사진 앞에 장졸과 함대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잡옷마저 잃어버린 원균은 거제도의 산속으로 돌아왔다. 그는 칼 한 자루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는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아서 그 뚱뚱한 몸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다가 물까지 쫓아온 적의 칼을 받았다. 전라 우수사 이익기도 죽었고 충청 수사 최호도 배가 부서질 때 바다에서 죽었다.

(중략)

도원수 권륜은 군관과 나졸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말은 살찌고 기름졌다. 갈기에서 무지갯빛이 부서졌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토방 뒷마루에 걸터앉았다. 나졸들은 마당에서 창검과 기치를 정렬했다. 나는 마루로 나와서 그에게 절했다.

—이순신, 자네를 자네라고 불러도 좋겠는가?

그는 백의종군하는 나의 지위를 명석하게도 나에게 인식시켰다. 환갑의 나이에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백의의 몸이오니…….

나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체포되기 몇 달 전인 병신년 초겨울에 나는 한산 통제영에서 그를 대면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통제영까지 나를 찾아왔었다. ㉥조정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가토 기요마사의 부대가 곧 바다를 건너서 부산으로 진공하게 되어 있는데, 함대를 이끌고 부산 해역으로 나아가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을 요격해서 가토의 머리를 조정으로 보내라고, 그때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는 ㉦이 작전이 조정의 전략이며 도원수의 지시라고 말했다. 나는 그때 다만, 현장 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만 대답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갔고 나는 함대를 움직이지 않았다.

반간(反間)*들로부터 입수했다는 조정의 정보를 신뢰할 수 없었다. 그 무렵 부산 해역의 연안 포구와 섬들에 적들은 거대한 군비를 쌓아 놓고 있었다. 그 섬들 사이로 함대를 이동시키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성취한다.”

저 자 이승모, 최상훈
펴 낸 곳 한국교육평가인증
전 화 02-3401-8900
홈페이지 www.kydi.co.kr